

ICC 체포영장 ‘후폭풍’...네타냐후 기사회생하나

〈국제형사재판소〉

미국·이스라엘내 정적들도 ICC 비판...“네타냐후에 힘 실려”

블링컨 “ICC 제재 협력”...트럼프 측도 “ICC 검사 제재해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청구가 물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즉각 반발했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ICC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에서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일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최

대 일간지 에디오투 아흐로노트는 21일(현지시간) ‘헤이그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이번 ICC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특히 영장을 청구한 카립 칸 ICC 검사장에 대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하마스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같은 선상에 뒀다면서 “참을 수 없는 뻔뻔스러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신문은 그간 네타냐후 총리를 종종 비판해왔지만, 이번 ICC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NYT는 “ICC 체포영장 청구로 네타냐후 총리가 길고 파란만장한 정치 이력에서 가장 뜻밖의 반전 중 하나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칸 검사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아히야 신와르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등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칸 검사장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전쟁범죄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침공 계획에 비판적이었던 미국 당국자들도 ICC 체포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스라엘 국내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들도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동 뉴스 사이트 ‘알모니터’의 칼럼니스트 벤 캐스미는 ICC 체포영장 청구가 “현재로서는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준다”며 “그(네타냐후 총리)는 박해받는 희생자의 역할에 가장 행복해한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가 “네타냐후에게 염증을 느낀 지지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추진을 위해 정부가 의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을 물론 “미래에 우리(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ICC를 제재하려는 초당파적인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것에 대해 함께 일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참모인 로버트 오브리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진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을 방문, 네타냐후 총리 등과 회동한 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은행 계좌와 여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이스라엘 방문 결과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브리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 남태평양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의 누메아마텐타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호주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소요 사태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뉴칼레도니아에 발이 묶인 자국민의 출국을 위해 군 수송기를 보냈다. /연합뉴스

佛 마크롱, 소요 사태 뉴벨칼레도니행...“모든 세력과 대화”

호주·뉴질랜드, 수송기 보내 자국민 구출...25일부터 공항 재개 기대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태평양 내 프랑스령 뉴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한다. 22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뉴벨칼레도니로 떠났다. 마크롱 대통령은 뉴벨칼레도니 시간으로 23일 오전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하루 정도 머무를 예정이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대통령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뉴벨칼레도니에 간다”며 “뉴벨칼

레도니 모든 세력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뉴벨칼레도니로 군 수송기를 보내 150여명의 자국민을 뉴벨칼레도니에서 탈출시켰다. 양국 정부는 아직 자국민이 뉴벨칼레도니에 남아 있다며 더 많은 항공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벨칼레도니에는 약 3천명의 관광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뉴벨칼레도니 당국은 보안군과 경찰이 대거 배치되면서 뉴벨칼레도니도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FP 통신에 따르면 원주민 카나크족 일부는 여전히 복면을 쓰고 수제 투석기로 무장한 채 수도 누메아에서 라 톤투라 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막아서려 하고 있지만 보안군은 도로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불에 탄 차량을 치우고 있다. 이번 소요 사태는 프랑스가 헌법을 개정해 뉴벨칼레도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유권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뉴벨칼레도니 전체 인구 27만여명의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카나크족은 유권자가 확대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친프랑스 정치인만 유리해진다고 지적하며 지난 13일부터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

라이시 시신 테헤란 도착...오늘 대규모 추도식

러시아·인도·튀르키예 등 조문 반체제 진영은 분노 속 ‘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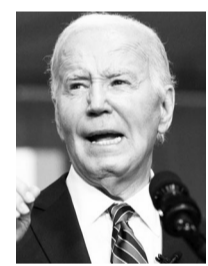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위한 대규모 추도식이 22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거행됐다.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라이시 대통령 등 사고 헬기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한 고인들을 위한 기도를 집전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인도 등에서 온 외국 대표단도 추도 행사에 참석한다. 이란 IRNA 통신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얌라하한 외무장관의 시신이 전날 오후 수도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정부 및 군 고위인사들이 레드 카펫에 도열해 시신을 맞았다. 군 호위대가 관을 옮기는 동안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IRNA 통신 영상에 담겼다. /연합뉴스

이란은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 20일 5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고, 22일은 공식 공휴일로 선포했다. 당국은 22일에 전국적으로 장례 행진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무실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이란에서 가장 큰 모스크(이슬람 사원) 모살라에서 열리는 이날 추도식에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들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오전에 직접 추도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외국에서 온 조문단이 참석할 가운데 추도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23일에는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이 고향이자 이슬람 시아파의 주요 성지인 마슈하드로 옮겨진다. 시신은 제8대 시아파 이맘(종교지도자)의 영묘에 매장된다. 이란 전역에서 라이시 대통령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반체제 인사를 숙청하고 인권탄압을 자행한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지지율 36% ‘재임 중 최저’

미국 대선을 6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재임중(2021년 1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날까지 나올동안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지난 2022년 7월 기록한 집권 이래 최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의 38%와 비교해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 나선다. 전국 단위 조사상으로는 두 사람이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앞선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힌 데다 중동 정책을 놓고 지지층 내부도 분열하는 모습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답변도 전체의 21%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경제 정책이 더 낫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30%)에 크게 웃돌았다. 외교 갈등 및 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낫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를 차지, 바이든 대통령(29%) 지지를 웃돌았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